

'마음 가장자리가 시퍼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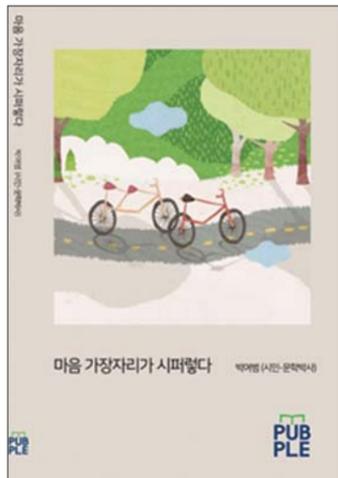
박여범 시인 두 번째 시집 출간

박여범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마음 가장자리가 시퍼렇다'가 출간되었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가장 큰 폭지를 디카시로 잡고 있다. 디카시와 더불어 사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폭지와 일반 시로 구성되어 있다.



박여범 시인

이유 없이 읽는 것이 싫다
한술 더 떠, 쓰기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마냥 피질러 있을 수도 없다
그렇싸하게 쌓여 있다
알 수 없는 무수한 문장들이 있다
가위로 잘라 열어 본 우편들엔
먼지만 가득 세월의 통증을 채워주고 있다
게으르고 답답한 바보 같은 삶이다
그 게으른 삶이 답답하게 피어오르던 날이
다
한 줄 한 장을 넘기기 어려운 석 달
구십 일 정적하게 얇은 시집에 머리가 아
프다
그저 끄적이던 알리지 않은 그런 마음에



나태함과 게으름이 돌방을 만들다 보면

박여범 시인 - 돌방을 만들면 -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디카)와 시(詩)의
졸임말이다.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
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사진)
과 문자를 함께 표현한 시다. 특징으로는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사진과 함께 실
시간으로 공유해 순간의 시적 감흥을 담은
것이다. 시적 형상을 순간 포착하고 그 느낌
이 날아가기 전에 문자로 표현하여 SNS로
실시간 소통한다는 점에서, 영상과 함께 표
현되는 문자는 짧게 5행 이내로 언술 된다.

아픔만 주었다
생각할수록
마음 가장자리가 시퍼렇다

박여범 시인 - 배추벌레의 마음 -

디카시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
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 언어 예술이라는
기존 시의 범주를 확장하여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 예술이
라고 할 수 있다. 디카시는 2016년 국립국어
원에 문학 용어로 등재되었고, 2018년에는
중·고교 국어 교과서에 디카시 작품이 실
린 바 있다.

박여범 시인은 충북 옥천 청산 출생으로,
하여(何如), 습습한 디카시에 미치다 운영자,
디카시 마니아 회원, 시산맥 특별회원, 전북
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전북
남원의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용복중학교 교감이다.

/김윤성기자

조형 도예가 나운채 작가 '도예전'

28일까지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서 도예 작품 25점 전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마련한 '흔적'으
로 표현한 아름다운 도예이야기 도예전이 열
리고 있어 관람객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
았다.

특히 40여 년 동안 오로지 장인정신으로 도
예의 길을 걸어온 조형 도예가 나운채 작가의
손때 묻은 도예작품으로 지역주민들과 군민들에
게 불거리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나운채 작가의 '도예전'은 무주 예술인들의
요람인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 미술관에는 나
작가의 도예 작품 25점이 전시돼 품격 있고 우
아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나 작가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무주
도예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조형도예연구 분
야)다. 나 작가의 작품세계는 도예를 통한 '흔
적'을 나타내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나 작가는 "이번 전시한 작품은 나무에 이미
지를 단순화한 조형물이고 생명이 움트는 것
에 초점을 맞췄다"며 "외사설처럼 연결된 우리
네 관계, 즉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잘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작품을

통해 우주를 표현했으며, 주변과의 관계 속에
서 흔적을 주고받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만
남 우주에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
리의 관계를 잘 맺자는 데 작품의 의미가 있다
고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작가가 출품한 작품들은 모두 흙의 질감
을 살리기 위해 굵은 과정에서 특이한 변화
를 줬다. 일반적인 도예 작업은 유약을 바르고
불에 굽지만 그는 유약 없이 바로 '전통 가마'
에 오랜 시간동안 구워 작품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포근하다. 이에 대해 나
작가는 포근함과 편안함을 살리기 위해 자연
에서 오는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 유약을 바르
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86년 전국대학생 공예전 입상을 비롯해
1987년 서울현대도예공모전 산업미술가협회전
입선, 지난 2006년 무주예체문관 개인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욱 팀장은 "군민
들과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유약을 바르지 않는
나운채 작가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번 전시회가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이 됐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공개 채용

전북문화관광재단, 2월 3~9일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2022년 문화
예술기관 연수단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고는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jct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
수는 2월 3~9일까지 이메일(jctpr@jctc.or.kr)
로 제출하면 된다.

채용인원은 무용, 체육, 연극, 뮤지컬 등 실
연 분야로, 만 34세 이하 청년예술가 2명을 선
발한다.

자격요건은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예술 관련
중·고·대학교 등)이거나 비전공자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 자격증 보유자, 교육과정(공

공·민간 시설 및 단체 3개월 이상 교육) 이수
자 중 하나의 항목에만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여
성 가장, 북한 이탈 등 취약 취약계층은 우선
채용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성별은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만 가능하다.

근무는 전북예술회관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연수단원으로 활동한다.

심사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1차 서류전형
과 2차 서류 합격자 대상 면접 및 실기 실연이
며, 오는 2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나 공연기획추
진단(063-230-74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전주대 박물관, 문체부 지원사업 3개 부분 선정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진행하는 사립대학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3개 부분이 선정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국고 지원사업은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예, 교육 및 예비 학예 분
야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대학박물관의 질적 수
준을 높이고 전문인력의 현장 능력을 강화해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전주대 박물관은 박물관 큐레이터를 전
문적으로 양성하고, 동시에 특별전시 및 다양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에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초·중·고 학생
및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나
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
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한복문화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한복문화
활성화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한복문화도시 남원이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남원시는 지난해 일상 속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해 봄 기간과 가을 기간의 두 차례에 걸쳐
한복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한복의 멋스러움을 가장 잘 담아냈다는 평가
를 받았다.

한복체험관 화인당에서 진행된 '이리 오나라
입고 놀자!'는 '화인날개(패자)' 1시간 무료
체험 이벤트로 친구, 연인, 가족 등 다양한 방
문객들이 한복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했으며,
'한복 입고 너도나도 관광무원 입장'을 통해

한복문화를 일상으로 한 뼘 더 끌어 왔다. 광
한투원의 고즈넉한 풍경이 어우러져 장소의 멋
과 한복의 멋을 두 배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예루원마당에서는 한복을 입은 예술가들이
한복의 멋을 흥과 함께 선사했다. 한복이 국악
뿐 아닌 여러 장르의 공연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와 함께 한복과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접목
을 통한 대중문화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보
여주었으며, 남원도유관에서는 지역의 한복 기
록을 수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콘텐츠로 시
민들과 공유하는 '천의 기억, 3다' 기획전시
로 한복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섰다.

또한 '옛 추억을 한복 입고 따라가기 사진

전'은 남원과 한복을 가장 잘 표현, 과거 남원
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보고 그 시절을 추억하
며 다시금 남원을 방문해 같은 장소에서 한복
을 입고 사진을 찍어보면서 새로운 추억을 남
길 수 있어 특별함을 더했다.

특히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복문화교육 평가
는 더욱 돋보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남원시를 한복문화 교육 우수기관에, 남원중학
교를 우수학교로, 그리고 우수강사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수 참여자로 선정하여 남원시의
노력을 인정받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남원에서 꽃피
우는 한복문화를 통해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
다움을 알리고 언제 어디서나 한복을 만날 수
있는 한복문화도시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소리 판 꿈나무 무대'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월 매
주 토요일 2시, 남원 지리산소극장에서 2022
판소리마당 '소리 판 - 꿈나무 무대'를 개최한
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공연의 정착과 판소리
인재발굴을 위해 국립민속국악원이 기획한 것

으로,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초·중·고 학
생 소리꾼 12명을 선발하고 30분~60분 내외의
판소리 눈대목을 들려줄 계획이다.

2월 5일 정운서(심청가), 강민술(춘향가), 원
정인(춘향가)의 무대를 시작으로 12일은 김미
나(심청가), 김현서(심청가), 장서화(심청가)

가, 19일은 최은우(흥보가), 이송현(수궁가),
유아인(심청가)이, 그리고 마지막 날인 26일은
한지우(수궁가), 이정은(심청가), 김민걸(수궁
가)이 출연한다.

관람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수
칙을 준수한 공연진행에 의해선착순 사전예약
(국립민속국악원의 카카오톡 채널(1:1 대화)
및 전화(063-620-2329))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
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